



전대미문 재난 블록버스터

# 부싯발행

## "이타심으로 이끄는 기차"

세상에는 많은 좀비 영화가 있지만 "부산행"이 가장 인상적이다. 2016년 "부산행" 공포 액션 영화는 긴장감이 넘치고 시청자는 멈출 수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공유는 늘 일만 하는 이혼한 아버지 서석우다.

그의 딸 수안은 서석우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에 화가 나고 서석우는 수안이 좋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생일날에 수안은 석우 대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실망한 서석우는 할 일이 많았지만 수안을 엄마에게 데려 가기로 한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와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기차에는 서석우와 수안 외에 친절한 젊은 야구 선수와 그를 좋아하는 인기있는 소녀, 두 노인 자매, 첫 아이를 기대하는 부부, 이 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남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것은 파업 중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기차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현실은 곧 분명해진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 싸워야 한다.

누가 살아남아야 하나? 죽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은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

펀드 매니저인 서석우는 자신을 계속 생각하는데 딸은 이타적이다.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서석우는 욕심을 버리고 딸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명확해진다.

"부산행"은 가족의 중요성과 같은 문화적 가치를 드러낸다. 영화는 또한 한국의 노동 문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를 보여준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준다. 아직도 사람이 이기심이 없다면 운명이 항상 친절할 것은 아니다.

"부산행"은 강렬하고 감성적이어서 시청자에게 삶, 가족, 우정에 대한 많은 생각을 남긴다. 이 영화는 좀 슬픈데 평생 봐야 할 영화이다. 안 보면 후회할 것이다.

가을